

잊고 있던 우리 문학사의 새로운 줄기

《조선통신사의 문학》 펴낸 이혜순 교수

문화교류는 그 시대 문학사 이해의 핵심 요인이다. 이화여대 이혜순 교수(54)가 얼마전 출간한 《조선통신사의 문학》(이화여대출판부)은 17세기에서 19세기에 걸친 조선통신사를 중심으로 양국의 문학 교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핀 비교문학 연구서다. 이 책은 이제까지 사각지대였던 한일문학 교류 부분에 새로운 연구줄기를 세웠다는 점에서, 우리 문학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선한 자극을 던진다.

한·일 문사의 문학적 만남에 주목

“우리 문학을 국제관계 속에서 파악하려는 비교문학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일 양국 문사의 만남은 흥미로운 테마입니다. 처음 연구는 한국문학에 나타난 중국적 요소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는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했던 한일 문화교류에 주목하면서 문화 ‘수신자’가 아닌 ‘발신자’의 입장이 드러난 자료에 흥분 되기 시작하더군요.”

조선에서 임진란 후 포로들을 쇄환하기 위해 공식사절로 일본에 파견한 사행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모두 12차례. 사행의 목적상 정치적인 성격은 점차 문화교류 중심의 성격으로 변하게 된다. 이혜순 교수는 이 책에서 12차례에 걸친 조선통신사의 성립배경과 사행의 시대적 변모, 일기·시·창화·서신·필담 등의 문학적 기록이나 17세기 말부터 18세기에 걸친 한일 문사교류의 새로운 양상들, 주자학에 대한 사상적 논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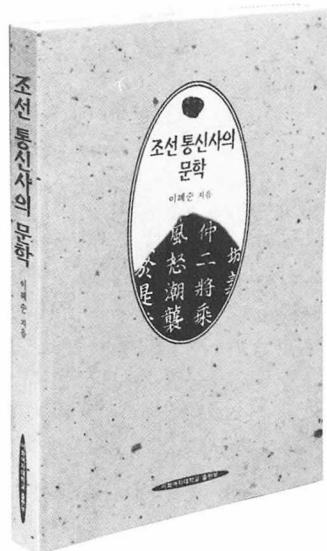
‘오행론’ 대결 등 조선통신사 문학의 한일 문학사적 의의를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다.

문화교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제7차 때부터. 일본 각계 유명학자와 문사가 모여들었지만 조선에선 이에 적절히 대응할 만한 문사가 없었다. 이후 정사·부사·서장관들을 모두 글 잘하는 문사 중심으로 보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문학교류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다.

여기서 이혜순 교수는 위항문학에 주목한다. 사행을 통한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제술관과 삼방서기인데 이들 모두 서얼계층 즉 위항인으로 추측되는 것. 이들 가운데는 뛰어난 문재로 문화적 역할을 한 사람도 많다. 8차 신묘사행 때의 제술관 이현, 임술사행 때의 안신취나 홍세태, 1763년에 역관으로 갔던 이언진 역시 문재가 뛰어나면서도 신분적인 불우를 극복하지 못한 불행한 시인으로 기록된다. 1719년 〈부상일기〉를 쓴 군관 정후교나 4차 때 김세렴, 6차 때 남용익 원증거 등도 우리나라 위항문학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켜야 할 인물로 꼽는다.

조선과 일본의 자존심 싸움

“사행록들을 살펴보면 하나하나의 기록은 조선과 일본의 자존심 싸움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쪽 사신들은 주로 문인 중심이어서 한시에는 뛰어났으나 깊이 있는 학문적 토론이나 논쟁을 이끌 만한 학



이혜순 교수.

문적 지식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보려는 일본학자의 의도적인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한 것도 거의 모든 사행에서 드러난다는 것. 그러나 1764년 에도(江戶)에서 돌아오는 중에 일본인에게 피살된 조선의 사행인 최천종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탐학한 인물로 조작해 놓은 것이나, 표면적으로는 ‘조선통신사’라고 부르면서 이를 ‘내조(來朝)’라 하여 조공을 위해 온 것으로 기록하는 등 일본인의 섬세한 역사조작에는 두려움조차 느낀다.

“사행으로 갔던 조선인들이 남긴 그 수많은 시 창화들이 일본 각지와 개인의 집에 보존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개척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그 시기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 시대정신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한일 공동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일제 강점 말기에 태어나 한국 최초의 여 기자로 활약했던 어머니 최은희씨의 삼남매 중 막내인 이교수는 지난 8월까지 주어진 안식년 덕택에 이 책을 마무리지었다. 매일 집과 학교를 오가며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학문적 발견에 대한 기쁨 때문이다. 제일 큰 기쁨은 사행문학의 뛰어난 문인을 발굴, 우리 문학사의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이교수는 이어서 후학들과 함께 조선 유명산 기행문학 연구인 《조선 중기 유산기》와 신라 이후 조선시대까지 다룬 《한문학사》를 공동저술할 계획이다.

—김지원 기자

【디자인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모두 뛰어난 책,
내용은 훌륭하나 형식이 뒤따르지 못한 책,
형식은 그럴듯하나 내용이 보잘것없는 책,
내용과 형식이 모두 형편없는 책 -

다름기획은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내용을 적절한 그릇에 담아내는 것,
바로 다름기획의 일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다름기획, 뭔가 다른 기획입니다



표지 및 본문 디자인 / 어학교재 · 학습지 디자인 / 전문교열 · 교정

DARUM Publication Design Planning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38번지 성지빌딩 1208호
TEL: (02)707-0572 FAX: (02)707-0573

【문장에도 숨구멍이 있습니다】

숨구멍이 막힌 문장은 생명 없는 책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원고,
어쩔지 결구려워 잘 읽히지 않는 번역원고,
몇 군데 숨길만 띄워 주면 좋은 책이 될 원고,

다름기획은 이런 원고들의 숨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다운 리라이팅으로 쉼표 하나까지,
섬세하게 다듬어 드립니다.